

Case Study 용인송담대학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통합 BI시스템으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극대화

'코그노스 8 BI' 도입해 학사행정 등 핵심 업무에 적용 중, 향후 적용 분야 확대 계획



용인송담대학은 전문대학으로는 최초로 BI 솔루션인 '코그노스 8 BI'를 도입해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용인송담대학은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BI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용인송담대학은 BI 솔루션으로 신뢰성과 커스터마이징, 교육,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하고, 부산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코그노스 8 BI' 제품을 도입했다.

업무 부서간 데이터 공유 어려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위치한 용인송담대학은 1994년 용인공업전문대학으로 개교했다가 1998년 지금의 용인송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현재 용인송담대학의 학과는 기계·제지계열, 전기·전자 계열, 컴퓨터계열, 디자인계열, 사회실무계열 등 28개이며, 학생 수는 4,532명이다. 2000년 정보통신부주관 주전산기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9년 연속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용인송담대학의 BI 프로젝트는 200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송담대학의 당시 종합정보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이뤄져 있었는데 학교의 업무 담당자 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통계 수치를 뽑을 때,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만일 업무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결과물의 산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대학이라는 특성상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문대학협의회 등에 통계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까닭에 각 업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작업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용인송담대학의 종합정보센터 소장인 서대우 교수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다양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전산소에 요구했다. 교직원들이나 경영진들이 데이터를 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미 리포팅 제품을 사용중이었는데,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할 뿐 정작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지원은 매우 미미했다"고 BI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용인송담대학은 BI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한 후 BI 솔루션의 검토에 들어갔다. 제품의 도입 요건으로 신뢰성, 학교의 특성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유지 보수 및 교육지원 등을 내걸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종속적일 수 밖에

“용인송담대학은 업무 담당자들 간의 데이터 공유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BI를 도입했다. BI의 도입에 따라 과거 각 부서의 자료 요청에 시달렸던 전산소는 그 짐을 덜고 고유 업무에 전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대학의 핵심 업무 외에 멘토링 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등에도 BI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대우 교수
용인송담대학

없는 ActiveX의 사용 여부까지 고려했다.

웹 환경의 통합 툴 등 고려해 코그노스 선정

용인송담대학은 코그노스의 파트너사인 칸테크를 통해 코그노스 8 BI 제품을 제안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협력사에서 이미 제안한 상태였다. 서대우 교수는 “두 제품의 기능은 비슷했지만, 코그노스의 제품은 웹 기반의 통합 툴이라는 점과 ActiveX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고려해 코그노스의 제품을 선정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용인송담대학은 BI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타 벤더의 BI 제품으로 구축했던 부산대학교를 벤치마킹 했다. 서대우 교수는 “현재는 칸테크가 강원대학교, 동국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의 경영정보 시스템을 수주했지만 처음에는 학교 분야의 레퍼런스 사이트가 없어 조금 고민이 됐다. 그래서 비록 타 벤더의 제품이지만 잘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부산대학교를 벤치마킹했는데 칸테크는 이를 수용해 많은 제안을 해줬다”고 말했다.

용인송담대학은 제품을 도입한 후 매주 3회씩 3주 동안 사용자 교육을 받았다. 제품 도입 이후 사용자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데이터를 조합해 만들어냄으로써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그동안 자료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만 했던 전산소의 업무는 크게 줄어들었다. 서대우 교수는 “대학이라는 특성상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1년 정도가 지나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구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수치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용인송담대학은 추석이 끝난 후 현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나 제안사항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정보센터 전산소 소속의 박은규 주임과 임양수 주임은 “하지만 이 제품의 도입으로 과거 전산소에 문의했던 자료 요청 건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통계업무에 대한 요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BI 솔루션의 도입 효과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산실에 자료 요청 건수 크게 줄어

용인송담대학 전산소는 현재 보직교수 1명과 실무진 2명으로 타 대학의 전산소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 BI 도입으로 전산소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게 전산소의 얘기다.

용인송담대학은 현재 학사행정이나 입학관련업무, 대학 총괄 등에 BI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서관의 장서 현황이나 학생지도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용인송담대학은 현재 업무자동화의 구현을 목표로 수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미 802.11g 무선인터넷서비스기반구축 등의 프로젝트는 마쳤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웹 포털의 경우 각 메뉴마다 하나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SMS 서버도 따로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특히 멘토링 시스템은 용인송담대학이 자랑하는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멘토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출석 현황이나 면담 내역 등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며, 해당 통계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까지 SMS를 보낼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도 용인송담대학이 경쟁력 있게 내세우는 시스템으로 꼽힌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출결 상황, 성적, 통학거리, 가정형편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향후 특별한 지도나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예측함으로써 원활한 학생 지도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용인송담대학은 이러한 서비스와 BI의 연동을 고려하고 있다. 서대우 교수는 “지금 학교의 핵심 업무에만 BI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W** 신은영 기자 epah@com-world.co.kr